

주 제:	“나눔의 기적”	“연중 제 18 주일”	2008년 8월 3일
복음 묵상:	[마태 14,13-21]	[이사 55,1-3]	[로마 8,35.37-39]

그 많은 군중들이 굶주린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기가 아까워서, 자기마저 못먹다 보니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나, 못가져온 사람이나 모두가 굶주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어떤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봉헌했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당신이 드시지 않고, 그 많은 군중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셨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은 감복한 나머지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그렇게도 아까워 나누지 못했던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게 되었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여행용 가방 구실을 하던 낚시 바구니 비슷한 광주리로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빵과 물고기의 분량이 불어나서 오천명 이상이나 되는 군중을 배불리기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 보다는도 더 큰 기적일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복녀 마더 데레사 수녀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욕심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울만한 세상은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 라고 하셨다. 이 세상의 많은 분쟁과 불의와 폭력과 빈곤과 불행들은 나눔의 정신 보다는도 욕심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전부 주셨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마저 우리에게 먹이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누어 줌으로써 나눔의 신비 기적을 일으켜 보자.....◆ (허성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8월 3일 (일) **이재섭 니콜라스 와 이 필로메나** 부부님께서 성가대원들을 점심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장소는 미사후 Los Altos 에 있는 **Sylvan Park Mt.View** 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468>
- 김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가족들과 함께 7/30 부터 8/8 까지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떠나십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흥진 데레사 자매님** 금주말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은 8/1 부터 3 주간의 여정으로 동부를 여행합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최효원도미니카 자매님**, Kamca 의 Youth Symphony 단원들을 이끌고 7/18 부터 7/29 일까지 서울 Summer Camp 를 떠나셨습니다.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 성가대 발전을 위한 단원들의 고전을 듣고 싶습니다.
 - 성심성가대의 좋은점.
 - 우리 성가대의 고쳤으면 더 좋을 점들을 적어 의견함에 넣어주세요.
- 성가대 피정 (9/13)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은혜받을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아울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정에서 CD 녹음을 할 예정이며 매주 녹음할 곡목도 아울러 연습하오니 연습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 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 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 가량 되었다.

1분 명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하느님의 은혜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한 마디로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면 분노도 질투도
그 어떤 잡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진정한 마음의 가난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깡통을 차고 빈민굴에서
하루하루 얻어먹는 생활을
축복해주신 것이 아닙니다